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제33권 5호(다해) 2012.12.30

[묵상]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천사들의 환호와
목동들의 인사 뒤에는

여관을 찾아 헤매던 요셉의 안타까움이
만삭의 아내를 마구간에 누인 죄스러움이
하느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모시기 위한
성모님의 산고가 있었음을.

산고라.....

성탄의 기쁨에 가려져 있는
성가정의 기구한 운명

헤로데의 학살을 피해
갓 난 아기와 함께하는 피난길
낮선 이집트에서의 타향살이

누군가의 행복 뒤에 숨겨진
희생과 사랑과 봉헌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새 해를 희망으로 열 수 있게 되기를
성탄의 기쁨이 담긴 희망으로.

- 框 -

martin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서완덕 브루노 & 은혜 이사벨라 가정
주 일	(연)송기원 요셉, 이정용 야코보, 고준희 제임스, 송봉규 요셉 & 송광량 카타리나, 전시웅 요한, 김풍길 바오로, 가브리엘 & 클레오, 김선열 데레사
낮 미사	(생)이문오 요한, 이윤조 클라라, 이정수 헬레나 & 이정현 가정, 윤희동 안토니오 & 윤새라피나의 대자녀들, 식순영 아네스, 오해숙 루시아 & 오세원 아타나시오의 대자녀들, 최경자 카타리나, 김기정 루시아, 박인식 토마스 & 박기원 리디아 가정, 김영길 안드레아 & 김복희 로사리아, 정영모 미카엘 & 미카엘라 가정, 정동호 하상바오로 & 병옥 율리아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디에 가정 & 민영준 마르코, 오명섭 미카엘 & 오창애 안나 가정, 김준호 프란치스코 & 김씨니 클라라 가정, 임종보 & 임종호 가정, 정승원 셀리 & 트레이시 가정, 김서량 토마스 & 그레이스 가정, 토런스 북구역 가정, M.E.가정, P.V.2반 가정, 최기남 야코보 & 최옥희 데레사 가정, 조옥중 사도요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집회서(Sirach) 3,2-6,12-14

화답송 ○주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주님 행복하 - 으 니 다, 당신집에서사는 이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프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성을 올리나이다.○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행복하옵니다, 마음속으로 순례의 길 떠날 때,
당신께 힘을 얻는 사람들!○

○주 만군의 하느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느님, 귀를 기울이소서.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3,12-2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복 음 루카(Luke) 2,41-52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세상에 나타나시어,
사람들과 함께 사셨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101	144	101
봉헌	361	261	264
성체	145	301	305
파견	기쁘다 구주오셨네	101	146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교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교육

75).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제시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곧 교회의 사목 전체에서 성서적인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리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의 경험이 보여 주듯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매우 적절한 수단인 성서 사도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세계주교 대의원 회의 교부들은,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 기관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신도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양성 센터를 만들어, 거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살고 선포하기를 배우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곳에서는, 주석가들이 확고한 신학적 이해와 그들이 사명을 행하는 배경에 대한 적절한 감각을 지니도록 하는 전문적인 성경 연구 기관들이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대규모 집회 안의 성경

76). 있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교구 차원이나 국가 차원, 또는 국제적인 차원의 집회들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성경을 읽는 것을 더 강조할 것을 제의 하였습니다.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성체 대회, 세계 젊은이의 날과 그 밖의 다른 회합들에서, 말씀을 거행하는 것과 성서적인 교육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한다면 그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소들

77). 우리 가운데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점점 더 깊게 하라는 신앙의 내재적인 요청을 강조하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또한 이 말씀이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삶 자체가 성소임을 보여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님과와의 인격적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결정적인 선택들을 통하여 성덕에 이르도록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로서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고, 교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와 직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에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례 받은 이들로서 또한 다양한 생활 신분에 따라 살도록 부름 받은 이들로서 말씀과의 관계를 심화하도록 초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됩니다. <◆계속>

어떤 가정이 성가정일까요?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을 본받으며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가정 축일입니다. 어떤 가정을 막론하고 누구나 성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가정이란 어떤 가정일까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면서 아무런 역경이나 시련을 당하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가정이 바로 성가정일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부터 역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리라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명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음에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의 뜻이 옳듯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 또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남몰래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로 생각을 바꿉니다. 이후에도 줄곧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요셉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과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만을 추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을 때에도 오직 성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의 구성원은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보다는 늘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사신

분들입니다.

성가정이란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상 걱정 없이 평탄하게만 지내는 가정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것만을 찾고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맡겨드리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기도 지향 또한 그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제각각 자기의 뜻대로만 살기를 고집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식별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물질적이고 권력적인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베풀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죽고서 네가 사는 그런 사랑이지요. 이런 사랑을 주고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사라져갈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가정 축일인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추구하셨던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마침내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의 거룩한 천상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아멘.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성바오로수도회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권순길 세실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바오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권순길 체칠리아	신증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송현식 바오로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예수,마리아,요셉의 성가정 축일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나자렛의 성가정을 기억하며 이를 본받고자 제정된 축일입니다. 1921년 이 축일이 처음 정해졌 때에는 '주님공현 대축일' 다음 첫 주일이었으나, 1969년 전례력을 개정하면서 '성탄 팔일축제'내 주일로 옮겼습니다. -매일미사 중에서-

- ◆ 송년미사 겸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특전미사 :
2012년 12월31일(월) 밤11시30분
-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3년 1월1일(화) 오전 11시
(학생미사는 따로 없습니다.)

◆ 백삼위본당 구역/제단체 송년행사

한해를 보내면서 전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제단체들과 구역원들의 장기자랑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교우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람을 바랍니다.

- 일시 : 오늘 주일(30일) 오후 1시30분
- 장소 : 성전
- 참가자 : 제단체, 구역
- 문의 : 이남현 막시모 총무 ☎(213)272-3598
이상철 크리스토퍼 부총무 ☎(310)818-6902

◆ 송년 / 신년 미사후 친교자리

- 31일 밤11시30분 미사후 : 어묵국 나눔(성모회)
- 1월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후 : 떡국나눔
(사목회, 소공동체)

◆ 레지오 '매피의 여왕' 프레시디움(pr.) 창단

'매피의 여왕'pr.은 '신비로운 장미' pr.(단장 만나영 체칠리아)에서 분단되었습니다. 레지오에 관심있는 교우들은 함께 활동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장 : 이태옥 아가다

- 주회 : 1월3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2층 톨7

◆ 2013년 1월 캘린더

- 봉성체 : 1월3일(목) 오전 10시부터
- 성시간 : 1월3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 성모신심미사 : 5일(토) 오전 8시30분
- 주님공현대축일 : 6일(주일)
- 주님세례축일 : 13일(주일)

◆ 새해(2013년/제사년/다해) 본당 달력을 선물로 드립니다.

- 2013년 백삼위본당 달력을 교우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직 안가져간 분들을 한가정에 두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캘린더 주제 : ①성경속의 산, 강, 바다 그리고 호수 등 하느님의 숨결과 손길을 더욱 느끼게 되는 현존의 자리 '하늘 가까이' ②비잔틴 모자이크 이콘으로 엮은 구세사 '믿음과 구원의 여정'
- 전례력, 독서, 복음, 축일, 절기 등을 담은 새해 달력은 신앙생활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달력제작에 도움을 주신 광고후원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반 휴강 / 개강 안내

- 휴강일 : 1월3일
- 개강 : 1월10일(목) 오후 8시

◆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 성물판매대에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성물이 많이 준비되어있습니다. 한번 둘러주세요.☺
- 한글-영어 합본 상장예식서 : \$15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2월30일(주일) : 본당 송년행사를 맞아 소공동체가 전신자들에게 카레라이스를 무료로 대접합니다. 토런스 동1반이 봉사합니다. *주일학교는 방학으로 간식 없습니다.
- 1월6일(주일) : 소공동체(떡, 김밥 \$4)
주일학교(K/1학년 카레라이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순복	강태홍	권오상	금동균	김광자
	김상규	김성현	김우용	김준호	김철민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민기남	민형기	박종열	박현주
	송영미	엄지선	오명섭	오세원	오현희	육근주
	윤철	윤화경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형삼
	장영진	장정진	정연영	조준제	최길주	최영신
	최이원	최희숙	하양숙	한경숙		
	합계 : \$6,025					
미사헌금 : \$3,054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강태홍	권오상	금동균	김광자
	김우용	김준호	김철민	김형순	나경흠	남성철
	민기남	박현주	엄지선	오세원	오현희	윤화경
	이경태	이근태	이병우	이형삼	장정진	조준제
	최길주	최영신	최이원	하양숙	한경숙	
	합계 : \$5,300					
감사헌금 : 문향엽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오늘 주일(30일)까지 학교수업을 휴강합니다.
- 개학 : 1월6일(학생미사에 늦지않도록 준비합니다.)

◆ 한인가톨릭 청소년신앙대회(Korean Catholic Youth Day)

- 일시 : 2013년 1월5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출발 : 1월5일 오전 7시에 성당에서 카풀 이용
- 장소 : 가든그로브 수정교회(그리스도 주교좌 성당 예정지)
- 대상 : 8학년~12학년(교사포함 53명 참가)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310)613-9116
- 주관 : FIAT재단, KCRM

◆ 주일학교 견진교리를 위한 Lock-in

- 일시 : 2013년 1월5일(토)~6일(주일)
청소년 신앙대회 후 견진교리공부의 일환으로
본당에서 Lock-in 행사가 있습니다.
- 대상 : 9학년 기초반, 10학년 견진반
- 준비물 : 슬리펍백, 두꺼운옷, 성경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사 ☎(310)744-5878

◆ 2012년 교무금과 성전헌금을 오늘(30일)까지 마감합니다.

- 올 한해도 교무금과 성전헌금 그리고 특별헌금과 감사헌금을 봉헌해주신 교우여러분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내년초 Income Tax Return을 앞두고, 올해 낼 교무금이 남아있을 경우 12월30일까지 마감해주시면 감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본인의 헌금기록(2012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4학기 강의 안내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 2'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관구)
- 일시 : 2013년 2월8,9,10일(금토일 저녁시간)
- 장소 : LA 성아그네스 성당(2625 S. Vermont Ave.)
- 대상 : 신자 및 일반인 모두 환영
- 수강료 : \$50
- 교재 : 비참과 자비의 만남(송봉모 신부 지)
- 등록문의 : 김크리스티나 ☎(323)896-7525
- 주관 :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최대제 로베르토 신부)

◆ '커피와 신앙의 만남' 크리스마스 선물용 커피 판매

- 이나시오 커피 선물세트(케냐 6온스 \$10,
캐냐+ 콜롬비아 각 6온스 \$20,
블루마운틴+ 케냐+ 콜롬비아 각 6온스 \$50)
- 판매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수익금용도 : 쉼터조성, 사랑나눔실천, 성전건립 기금
- 문의 : 이나시오 카페 ☎(323)731-4433

소공동체 새해 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오신재 메히틸다 213-675-0498 1/11(금) 오후 7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1/12(토) 오후 6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이진향 아네스 989-0366 1/19(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1/19(토) 오후 6시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유선희 로사 710-8416 1/11(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1/18(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안혜진 세레나 634-6923 1/10(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이재용 안드레아 793-7733 1/12(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999-1448 1/12(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이근모 마리노 518-6142 1/12(토) 오후 7시 성당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최재은 베드로 377-0345 1/11(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11(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성미선 리디아 944-4577 1/12(토) 오후 5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1/8(화) 오전 10시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송년행사	오후 1시30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2012년 제12회 가정 성화주간 담화문

복음적 삶으로 거듭나는 가정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하느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모든 이에게 드러난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하며 모든 가정에 축복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가정 축일을 시작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정 성화 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주간에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의 모습을 새로이 성찰하고, 복음적 가치관으로 거듭난 가정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스며들도록 해야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통해 하느님께서 바라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랑의 내밀한 공동체’라는 표현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흠 없이 혼인을 치르고 나면 저절로 탄생되는 공동체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일생동안 긴 사랑의 여정을 통해 ‘성장해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법적 차원을 넘어 무조건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성장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 가정은 특별한 은총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참여하는 것이고, 굴곡 많은 가정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어디로 성장해 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길잡이와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새해에 우리는 신앙의 해를 지내면서 신앙의 은총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먼저 ‘복음적으로’ 쇠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삶은 “하느님 뜻과 구원계획에 반대되는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쳐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의 부정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는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다는 명목으로 인간의 신적 역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기술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실증과학에 대한 맹신과 물질만능의 사조들도, 인간의 실존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엄청난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모든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술력과 지식정보가

한 가정의 깨어진 화목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와 세속적인 능력이 인간의 삶을 올바른 가치관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분명 인간의 삶에는 실증과학이나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원한 차원이 존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정은 복음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살아가며, 의미가 충만한 가정,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은 특별히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애써 찾은 신앙의 보화를 물어둔다는 것은 곧 복음을 물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복음적으로 쇠신되어 살아가는 가정은, 자녀들이 함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체험하도록 신앙의 보화에 깨어있는 가정입니다.

자녀의 인격적 성숙을 위해,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와 자주 대화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교육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수 없이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들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욕구가 그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문제에는 부모들의 경제적 탐욕과 출세 지향의 세속화된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근본적인 결핍들이 되는 것은 부모들의 왜곡된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자녀의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성숙의 중요성을 실천적으로 독려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들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가정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쇠신됨으로써,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참으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가정사목위원회 위원장 /

황철수 바오로 주교

당신의 속도는 어땠습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벚꽃이 지는 속도를 초속 5센티라고 했습니다. 초속 5센티는 어떤 빠르긴지 모르겠지만 지는 꽃들도 제 속도가 있군요. 속도는 다르지만 한번 피웠던 꽃은 지는 것처럼 저마다 속도를 달리해서 살았지만, 모두가 한 해의 끝에 달았습니다. 빨랐던 이도, 느렸던 이도, 한 해 마지막 날은 같은 날에 맞게 되는군요. <이영 아네스 / 수필가>